

자동차 대체부품 시험기관 지정

전북도는 24일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험기관'으로 공식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이날 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로부터 '자동차 대체부품 시험기관 지정서'를 전달받았으며, 이 자리에서 협회와 상호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유일의 자

전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
부품협회로부터 전달 받아
상호 협력 위한 협약 체결
기술적 지원 등 확대기로

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받
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인증업무

를 수행하기 위해 부품별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중 콘트롤암, 쇼크 업소버와 같은 '기능성·소모성 부품' 분야에 관한 전문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이번 대체부품 시험기관 지정을 계기로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국내외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진출에 필수적인 인증

취득 및 기술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국토부 대체부품 시험기관 지정 및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자동차부품 기업들이 튜닝부품 및 대체부품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무주 치매안심센터 개소식 24일 무주군보건의료원 4층에 무주군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황인홍 군수를 비롯,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사랑합니다" ... 희망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 24일 도청 공연장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김동수 전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및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기관 단체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8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 행사가 열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전북도,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송하진 지사 “높아지는 시민의식에 맞춰야”

전북도는 24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전체 4급 이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간의 단순 이론 중심의 교육과는 달리 박용준 감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그간 현장 감사에서 느낀 청렴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박 감사관은 그동안 경험해 본 다양한 사례에 비취볼 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은 고위공직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렴의 지 수위를 위한 노력에 각별히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함께 한 송하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공심(公心)은 민선7기에도 변하지 않는 공직자의 제1원칙

임을 잊지 말아야 할다”며 “감수록 높아지는 국민의 정치적 수준과 시민의식에 걸맞도록 간부공무원부터 청렴하고 품격 있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전북 실현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 교육' 외에도 부패 행위 등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민원콜백 서비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마일리지 운영',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 등 41개의 실행과제를 설정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전북도는 지난 6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직윤리제도 운영평가에서 전국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진성 기자

“보육기관·교사, 관련 법 어기면 현장 퇴출”

문 대통령, 어린이집 사고 근절 강조... “인력관리 엄격히 해야”
복지부 ‘어린이 통원버스 사망’ 승차차 확인 시스템 대책 보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어린이집 사고 근절을 강조하면서 보육기관과 보육교사가 관련 법을 어기면 현장에서 퇴출시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2회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그 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를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통원버스에 방치된 채 폭염 속에 사망한 사

고 관련 보건복지부의 재발 방지책 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어린이 가방에 등·하원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센서를 달아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확실한 이동학대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현행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

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 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뉴시스

행안부, 폭염 피해 예방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과 간부 공무원 시·도별 지역전담제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26일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에 이어 추가로 60억원을 지원한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그늘막, 물안개 분사기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무더위쉼터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와 홍보활동 등도 추진한다.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는 폭염 지역전담제를 통해 지자체 폭염 대처상황과 현장점검을 집중 추진한다.

전담 지역별로 무더위쉼터 점검, 취약계층 보호활동,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 관리와 홍보 등 지자체 폭염대처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벌인다.

/뉴시스

미세먼지 막아라... 전북도, 내년부터 전기버스 도입

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
900억원 투입 216대 보급

전북도가 내년부터 전기버스를 도입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버스 도입사업을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추진한다.

이에 내년에는 115억원을 들여 27대의 전기버스를 보급하는 등 2023년까지 약 900억원을 투입해 총 21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216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경우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물질(경유버스 기준)을 연간 1만4320톤 가량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기버스가 운행될 경우 경유·천연가스(CNG)버스보다 연료비가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기버스를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지역의 시내버스와 관광차량 등에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시군 및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년부터 실제 버스 운행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며, 시내버스 업체가 전기버스를 구매할 경우 경유버스 구입비용의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전기버스 보급을 위해 전주와 군산, 익산 등 3개 지역의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버스 도입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